

MOVE 한눈에 보기

01

유네스코 동향

- 유네스코, 2025년 세계문화정책회의 바르셀로나 개최
- 유네스코와 페루문화부의 청년들과 함께 전통 도자기 홍보 프로젝트 개발
-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워크숍 성공적 개최

02

아시아·태평양 동향

- 케바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5개 동남아시아 국가 공동 등재
- 마카오의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및 글로벌 홍보 강화

03

국내 동향

- 제주도 국가유산 활용 사업 확대 추진
- ‘한국의장’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 소싸움, ‘동물 학대’ 논란에 무형유산 조사안 하기로

문화정책

유네스코, 2025년 세계문화정책회의 바르셀로나 개최

유네스코는 2025년 세계문화정책회의(이하 “MONDIACULT”)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지난 MONDIACULT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문화의 독립적 목표 설정과 문화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개발된 세계 최초의 문화 현황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이후 전 세계 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가기>>](#)

지속가능발전

공예

유네스코와 페루 문화부, 청년들과 함께 전통 도자기 홍보 프로젝트 개발

유네스코와 페루 문화부는 푸노(Puno)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 도예 기술을 보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전통 도자기 제작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니셔티브는 푸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과 결합해 전통 공예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바로가기>>](#)

지속가능발전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워크숍 성공적 개최

유네스코예멘지역사무소는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온라인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아랍지역무형문화유산역량강화국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총 23명의 참가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무형유산이 경제 발전, 사회결속력, 환경적 지속 가능성 및 평화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내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30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독립된 발전 목표로서 문화유산 목표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였다.

[바로가기>>](#)

아시아·태평양 **MOVE**

공동등재

케바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5개 동남아시아 국가 공동 등재

동남아시아 전통 여성 의복인 케바야(Kebaya)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5개국의 공동 신청을 통해 지난 12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공동 등재 사례이다. 싱가포르 문화·공동체·청년부 장관 에드윈 톰은 "케바야가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등재가 문화 간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바로가기>>](#)

디지털화 인식제고

마카오의 무형유산 디지털화 및 글로벌 홍보 강화

마카오 문화국은 지역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65개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마카오 문화유산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카오의 70개 무형유산 종목을 디지털화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마카오 문화국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며, 전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마카오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바로가기>>](#)

국 내 **MOVE**

관광

제주도 국가유산 활용 사업 확대 추진

제주도는 2025년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총 3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테마형 유산 체험 프로그램, 유산 명소 스탬프 투어, 미디어아트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국가유산 보수 정비, 자연유산 탐방환경 개선, 무형유산 발굴 및 전승 지원금 인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바로가기>>](#)

등재

‘한국의 장’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지난 1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로, 위원회는 장 담그기가 공동체 문화에 큰 역할을 하며,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고 공동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는 평가를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장 담그기는 가족 내에서 전승되어온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 문화에 뿌리를 이룬 유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로가기>>](#)

지정

소싸움, '동물 학대' 논란에 무형유산 조사 안 하기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소싸움에 대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계획을 보류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무형유산정책브리프 <MOVE>에 수집된 기사의 내용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 기조 또는 공식 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www.unesco-ichcap.org

전화 063-230-9713
팩스 063-230-9797
메일 ichcap.move@gmail.com

발행인 김지성
편집장 김덕순
편집자 장재영

[지난 호 보기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에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